

한국 철강의 아버지 ‘박태준’

글 | 윤재석 _ 국민일보 논설위원 blest01@hanmail.net

우리가 40년이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두뇌들이 연구실의 불을 끄지 않고 매진했던 열정과 애국심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산업 현장에 접목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한낱 현란한 유희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고도성장기 중화학과 철강, 전자 등 제반 산업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영웅들이 있었기에 산업입국이 가능했던 것이다. 산업화의 거목, 그 중 오늘날 대한민국이 조선강국, 자동차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대들보 역할을 한 청암(靑巖) 박태준(朴泰俊) 포스코 명예회장으로부터 한국 철강신화 비화와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실, 그가 내다보는 내일의 대한민국에 관해 들었다. 본인의 인터뷰 고사로 서면질의로 대신했다. <편집자>

Q 지난해는 회장님 생애에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 해였을 것 같습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았습니까? 감회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A 지난해 4월 1일이 포스코 창립 40주년이었습니다. 벌써 여덟 달 전의 일이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새삼스레 실감하게 되는데, 그날 크게 세 가지 감회에 젖었어요. 먼저 포스코가 근대화를 이룩한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기간산업인 포스코의 성공이 우리 산업화의 든든한 바탕이 된 동시에 민주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물적 토대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세월이 빠르고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사람이 세운 어떤 큰 뜻을 이루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순수한 사명의식, 책임감, 도전정신, 과학적 사고, 이런 정신들이 창조해낸 탁월한 예술품에 비유되어도 좋겠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대일청구권자금’ 조달해 포항제철 창립

Q 우리가 선박제조 1위, 자동차 생산 6위로 떠오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포항제철이라는 존재였다고 생각하는데, 1968년 당시 포항제철을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A 196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창립당시 포스코에는 대한중석에서 나와 함께 일해 온 인재들을 주축으로 한 창립요원 34명이 있었고, KISA(대한국제제철차관단)가 작성한 GEP(일반기술계획)라는 방대한 서류더미가 있었습니다. 이것 다시 말하면, 사장인 나를 포함한 34명의 사내들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당시엔 서독), 프랑스의 5개국 8개사로 구성된 KISA의 사업계획서에 의지한 상태에서 종합제철소 건설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아직 우리 손에는 구체적인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본도 기술도 오직 KISA가 만든 서류 속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KISA가 등을 돌려 버리면 신생 포스코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부모가 길가에 버려둔 신생아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창업요원들은 한편으로는 막막하고 불안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조직의 역할에 따라 GEP 검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1970-4-1 포스코 기공식



포스코 기공식



포항제철1기준공



포항제철소현제(형산강)

Q. 초기엔 참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부터가 큰 문제였을 텐데요.

A. KISA가 냉정하게 등을 돌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1969년 2월에 내가 직접 미국 피츠버그로 날아가서 KISA의 대표였던 코퍼사의 포이 회장과 담판을 지었는데, 서류로 깨끗하게 갈라선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더 지난 일이었지만, 그때 포이 회장과 의 대화를 통해서 포스코에 대한 차관 조달을 책임지기로 했던 KISA가 조금도 그럴 의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차관 제공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IBRD(세계은행)가 '한국이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KISA가 등을 돌려 버리니까, 포스코로서는 하루아침에 자금과 기술을 도입할 선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줍니다. 귀국하는 길에 하와이에 들렀는데, 어느 순간에 전광석화처럼 '대일청구권자금'이라는 말이 내 머리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것은 버려진 신생아의 신세로 전락한 포스코에게 새어머니가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박정희 대통령이 동의를 하셨고, 내가 열심히 일본으로 뛰어다녀서 일본정부와 일본 철강업계 대표들의 협조를 끌어냈는데, 그렇게 해서 1969년 12월에 당시 돈으로 대일청구권자금 7천370만 달러(유상 4천290만 달러, 무상 3천80만 달러)와 일본수출입은행 상입차관 5천만 달러를 조달하게 되었고, 드디어 1970년 4월 1일 포항제철 1기(연산 조강 103만 톤 규모) 건설의 착공식을 거행할 수 있었지요.

기술력 확보에 사활걸어·기술 연수·개발에 집중투자

Q. 기술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A. 포스코는 자본, 기술, 경험, 원료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하나? 심각한 고민거리였지요. 처음에는 KISA에 의지했으니까 외자조달과 기술도입도 그쪽에서 들여와야 했는데, 포스코의 파트너가 일본으로 바뀐 뒤부터는 외자조달과 기술도입의 선도 일본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기술력 확보를 승패의 관건으로 보았어요. 1차 목표는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술력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뤘느냐 하면, 포스코가 지은 두 번째 건물이 '제철연수원'이었는데, 그렇게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 호주, 독일 등 선진 철강회사로 연수를 보낸 인원이 600명 넘는다는 사실만 말해줘도 짐작이 갈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차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기술 연수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다. 기술연구소를 창설하고, 체계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냈지요. 일본기술단이 포스코에서 완전히 철수한 시기는 3기 준공 뒤, 그러니까 1978년 12월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포항제철이 4기 확장공사를 마치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덕담성 예언을 남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1992년에 시작해서 15년 가까이 연구하고 투자한 결과로 상용화에 성공한 파이넥스 공법도 바로 일류기술 확보에 대한 포스코의 전통을 응변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즘은 우리의 교사였던 신일본제철에서도 포스코에

기술연수를 받으러 옵니다.

Q. 제철소 건설과정 또한 역경과 난관의 연속이었죠. ‘제철보국’, ‘우향우’ 정신, 이런 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A. 포항제철 1기에는 대일청구권자금 7천37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요? 나는 ‘조상의 혈세’라고 규정했어요. 조상이 흘린 피의 대가라는 말입니다. 그런 제철소를 실패해요? 목숨을 걸어야지요. 그래서 실패하면 우향우 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는 ‘우향우정신’이 생기고, 기필코 성공하여 철로써 보국하자는 ‘제철보국’이 탄생되었습니다. 제철보국은 애국적 사명이고, 우향우는 민족적 사명입니다.

Q.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1973년 고로에서 첫 쇠물이 나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A. 물론 그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지요. 제철소 책임을 맡은 이후로 늘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던 ‘과연 쇠물이 나오겠냐’라는 걱정과 근심을 순식간에 감격의 눈물로 바뀌준 장면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시작이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3만 톤 생산을 시작해서 19년이 더 걸려 2천100만 톤을 달성했던 겁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를 무한’ 정신으로 효율성 높여

Q. 얼마 전 광양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1987년 준공 한 달 후에 한 번 방문하고 21년 만의 방문이었는데, 세계 최대의 제철소답게 엄청난 규모에 효율성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효율성을 높이는 비결은 어디 있었습니까?

A. 포항제철소 10년을 통해서 내 가슴에 한처럼 쌓여 있었던 모든 아쉬움을 통쾌하게 풀어버린 제철소가 광양제철소라고 보면 됩니다. 레이아웃과 설비선택에서부터 IT를 접목시킨 모든 관리체제에 이르기까지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고의 제철소라고 자부합니다.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그리고 중국 장쑤(江蘇)성의 장가항 포항 불수강, 이들 제철소 정문에는 똑같이 ‘자원은 유한, 창의를 무한’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는데, 포스코의 ‘창의’를 광양제철소에서 집대성했고, 이후 포항제철소 합리화 과정이나 장가항 포항 불수강 건설에도 포스코의 ‘창의’는 어김없이 발현되었습니다.

Q. 제2제철소를 광양에 짓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철소 입지 조건이었고, 다음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었습니다. 광양만이냐 아산만이냐를 놓고 정치권력 차원의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가장 과학적이고

사심 없는 근거에 의해서 광양만을 관철시킴으로써 광양만의 기적이라 불린 제2제철소의 성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Q. 포항제철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화 못지않게 가장 빠른 기간에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우뚝 선 기록으로도 유명한데 요즘 세계 철강 구도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미탈 같은 회사의 M&A 등으로 공정게임이 훼손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A.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철강업계의 급격한 팽창과 미탈 같은 M&A 전문업체에 의해서 세계 철강업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고 세계 철강구도에도 변화가 일어났지요. 지금은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어 세계적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중국 철강업체들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원로가격도 떨어지고 있지요. 한마디로 세계 철강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고 포스코도 사상 처음으로 감산을 결정했는데, 그러나 올해 포항과 광양을 합쳐 신규로 6조 원을 투자하는 포스코에게는 이번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포스코는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중국 철강업계의 급격한 성장에 분발 촉구

Q. 회장님은 우리가 철강산업을 배워온 일본에서도 영웅이지만,

청암과 우향우(右向右) 정신

1968년 1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 공사 현장을 찾았다. 그의 13차례 현장 방문 중 첫번째였다. 불도저들이 533채의 가옥을 마구 밀어붙이고, 여기저기서 초가가 불타고 있는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거, 남의 집 다 부숴 놓고 제철소가 되기는 되는 긴가.”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박 대통령이 혼잣말을 했다. 옆에 있던 박태준은 막중한 책임감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걸 느끼며 이렇게 답했다.

“각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다음부터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철소를 완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실패하면 현장사무소에서 나가 바로 우향우 해서 다 같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그를 평생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이대공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은 “당시 박 사장은 스스로를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정신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일탄을 직접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첨단시설인 연산 150만톤 규모의 파이넥스 공장

기실 중국에서 더 영웅이신데, 등소평과의 일화 좀 소개해 주시죠.

A. 1978년 여름에 일본을 방문한 등소평이 기미쓰제철소를 둘러 보고 신일본제철의 이나야마 회장과 회동했어요. 개혁개방과 산업화를 구상하고 있던 중국 최고 지도자의 머릿속에는 중국도 현대적 제철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이나야마 회장에게 “중국에도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세워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이나야마 회장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니, 그분은 “그게 그렇게 어려우냐”고 반문하고, 다시 이나야마 회장이 “제철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데 중국에는 박태준이 없지 않느냐,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으면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는 지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등소평이 뭔가를 생각하더니 “그러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화가 중국, 일본, 한국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뒤로 중국은 한·중수교 이전에도 포스코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Q. 그런데 지난해에 회장님은 이리다가 중국한테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 한탄하시기도 했죠?

A. 중국 철강업계가 1년에 '1억 톤' 단위로 팽창하면서 막강한 국력을 배경으로 삼아 세계의 원료까지 집어삼켜 대니까 우리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자극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원료외교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그제 원료가격 폭등시기에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인재육성에 국가 미래 좌우

Q. 저는 포철신화를 창조한 박태준 회장님도 존경하지만, 그보다

는 유치원에서 포항공대(현 포스텍)에 이르기까지 일관교육기관 설립과 방사광 가속기를 만드신 해안에 더 감탄하곤 합니다.

A. 인재육성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고, 인재육성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또 포스코라는 범위로 한정해서 볼 때는 '수준 높은 자녀교육'이 우리 종업원들의 복지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한국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학교들을 설립하여 그렇게 육성해 왔고, 광양제철소 1기 건설을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교육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는 나의 오래된 소망에 따라서 포스텍 설립을 결행했지요. 방사광가속기는 포스텍을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인프라라는 판단에 의해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심들에는 포스코 차원, 국가적 차원의 통찰이 있어야 했지만, '경영은 나의 것이지만 그 성과는 공(公)의 것'이라는 나의 확고한 신념과 경영철학이 그 실행의 근본을 이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얼마 전 과학기술자를 홀대하는 풍토에 심각한 개탄도 하셨는데요. 바람직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 인재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우리나라 경제계나 정치계의 지도층이 '오늘날 과학기술은 국부와 국방의 핵심'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영정책이나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과학기술이 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에게도 엔지니어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 정치, 문화 등 세계 전체를 총체적으로 사고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이끌 동력은 과학기술

Q.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각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굴뚝산업이었던 제철산업을 친환경 구조로 바꿔놓으신 경험에 비춰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제조업이 부실한 경제체제가 얼마나 위험한가는 현재 미국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서도 친환경적 제조업이 기반을 이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포스코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포스코가 포항에 연료전지 공장을 세워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기술력과 포스코의 기술력을 결합시킨 형태인데, 앞으로 기술의 국산화 비율을 꾸준히 높여 나가야지요. 또 경북 동해안에서는 풍력단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탄소가 없는 녹색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력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기술력이 크게 떨어지니까 비싼 돈 주고 독일의 선진기술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도 바로 과학기술이지요.

Q. 회장님은 예술에도 조예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진학중의 일본 전시회에 직접 가서서 축사도 해주셨죠?

A. 예술에 대한 조예는 깊지 못해요. 다만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은 누구 못잡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류 과학기술과 일류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룬 도시가 일류도시고 그런 나라가 일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팔순이 넘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진학중 선생은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 현존 최고의 초서 서예가이자 친구니까 당연히 축하하러 갔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선진화'

Q. 글로벌 경제 위기 탓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우리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지도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흡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치 산업 분야의 원로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조금 휘둘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잡고 전진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의 비전으로 제시한 '선진화'에 집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라는 말을 시대적 담론의 키워드라고 볼 때는 1960년대부터 약 50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통합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화라는 말을 각론으로 들여다볼 때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별 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정치 구조의 선진화에 대해 논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임기 문제, 정당 문제, 권력 구조 문제 등을 다룰 수 있겠고, 대학교육의 선진화에 대해 논의할 경우에는

인문학 중심의 '칼리지'와 로스쿨이나 메디컬스쿨 같은 전문적 교육 중심의 '스쿨'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다룰 수 있겠지요.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회를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활용하는 정책도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선진화에서는 대북관계, 통일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변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층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간 전략적으로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청암 박태준은?

1927년 9월 29일 경남 동래군 장안면에서 태어나, 6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자랐다. 45년 와세다대 기계공학대에 입학했다가 광복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귀국, 48년 육군사관학교를 6기로 졸업,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61년 단국대 정치학과 편입, 63년 8월 졸업했다.

5·16 쿠데타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쿠데타가 실패할 경우 대비, 쿠데타 전날 박정희가 가족을 부탁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거사 성공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상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입안에 관여했다.

63년 육군 소장 예편 후 경제인으로 변신, 64년 대한중석 사장에 선임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켰고, 68년 4월 포항제철의 초대 사장에 선임되어 10년 만에 연산 550만t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경제 제1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 81년 제11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 전국구)으로 국회 재무위원장을 역임했고, 88년 민주정의당 대표를 맡았다. 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이 되었으나, 김영삼과의 불화로 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영삼 집권 이후 포철 협력사들로부터 40억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동안 외국을 떠돌았는데, 여기에는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있다. 97년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정을 공격하면서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 재기했다. 같은 해 자유민주연합에 입당, 총재로 추대되고, 김종필과 함께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지원했다. 2000년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으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4개월 만에 사임했다. 현재 포스코 명예회장 겸 청암재단 이사장이다.



글쓴이는 서울대 사대 화학교육과 졸업 후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신문마케팅을 전공하고 미국 미시간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연구한 후,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환경학)을 마쳤다. 중앙일보 국제부 차장 및 과학부 차장을 거쳐 국민일보로 옮겨 국제부장, 부국장을 지냈다.